

# 分類表草案의 主類에 對한 小考

—事業의 中間報告를 兼하여—

千 惠 鳳

分類表草案을 委囑받은 한 사람으로서 主類 採擇問題에 對한 愚見을 會員諸位에게 開陳하고 提起하는 趣意는, 앞서 分類分委事業計劃에서도 屢言한 바와같이, 分類表 編纂事業은 다른 事業과는 그 性格이 特異하여 몇몇 實務委員과 諮問에 應해준 專門家들의 意見이나 努力만으로서는 到底히 完成시킬 수 없기 때문에, 愚見에 對한 여러분들의 發展의인 批判과 아울러 誠意있는 自發의인 助言 및 協助를 바라 고져 하는데 있음을 미리 言及해둔다.

## 1. 分類表構成의 基本原則

分類表의 編纂이 實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誰何도 否定치 않을 것이다. 그 까닭은 分類表의 主類 序列 및 區分排列이 理論의이면서도 實際的인 利用의 便宜를 充分히 圖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主類 序列 및 區分排列이 理論의이라함은 圖書分類表의 主類 序列 및 區分排列에 있어서, 知識의 全分野가 學의 分類의 論理的인 原則에 立脚하여 體系의으로 展開됨으로써 理論的인 一貫性이 있도록 함을 말하고, 實際的 利用의 便宜를 圖謀한다 함은 圖書分類表가 學의 分類의 論理的인 原則에 準據하면서 圖書整理와 利用에 便利하도록 各細目以下에 있어서는, 必要에 따라 數多한 區分原理를 併用하여 單純化시

키고, 圖書의 多少에 따라 表의 精粗를 適切히 하여 複雜을 덜고, 또 一貫性 있는 區分의 助記性을 保持하여 理解와 記憶이 容易하도록 하는 등의 人爲的 乃至는 技術的인 調整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萬一圖書分類表가 知識의 理論的인 展開만을 爲 主로 하고 助記性等을 包含한 實用面이 缺乏되었다면, 그것은 圖書排列을 위한 分類表라고 하느니 보다는 學을 爲한 分類表가 될 것이요, 反面에 實際的 利用의 便宜에 置重한 나머지 理論的인 體系를 等閑視하였다면, 主類 또는 綱·目 相互間의 內容上의 聯關性을 隔離시키는 結果를 招來할 것이다. 따라서 圖書分類表 作成에 있어서는 兩者가 適切히 考慮되어야 함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實際問題로 既成의 主要分類表를 比較檢討하여 보면 이 兩者의 適切한 均衡과 調和란 매우 어려운 것 같다. 예컨대 L.C.(美國議會圖書館分類表), E.C.(Cutter의 展開分類表) S.C.(Brown의 Subject classification), Bliss의 分類表等 諸 非十進分類法은 主類 및 區分의 理論的인 體系가 各各 다르다하더라도 그 어느 것이나 主類數가 10개로 限定되지 않고 그 이상 3,400개까지 區分되고 綱目이 細分展開되어 있어, 十進法(D.C.)에 比하면 論理的인 것이라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主題의 進化와 學問의 發展에 따

라 無限히 展開될 수 있는 長點이 있다. 그러나 反面에 表自體가 複雜하고 그 全體를 把握하기 困難하여 一般圖書館에서는 別로 實用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 點은 L.C.의 編纂趣旨가 一般圖書館을 爲한 것이 아니라 그 自體의 龐大한 資料를 分類하기 위한 特殊事情에 依한 것임을 보거나, 또는 E.C.가 D.D.C.의 主類序列 및 區分の 缺點을 指摘하고 만든 것임에도 이를 繼承 發展시키지 못한 事情을 보더라도 過히 짐작할 수 있는 問題인 것이다.

一方 十進法은 知識의 全分野를 9大類(classes)로 大別하고, 各類는 9個綱(Divisions), 各綱은 9個目(Sections) 그리고 그 以下는 다시 段階的으로 9分式으로 展開하고 있으므로 合理的인 展開가 困難하며, 또한 目 以下에 있어서는 主題의 論理的인 進化에 따른 展開라기 보다는 接近한 主題, 關聯된 主題를 併合하여 便宜的인 排列을 하고 있는 까닭에, 前者에 比하면 그다지 理論的인 體系가 못된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9分の 制限을 받아 疏密의 差異가 甚하여 繁雜한 곳에서는 分類記號가 길어지고, 또한 主要한 新主題를 理論的인 序列位置에 適切히 插入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하여는 頻繁히 修正을 必要로 하는 短點을 謀免키 어렵다. 그러나 實用的인 面에서 본다면 知識의 9單位別 統整으로 因한 簡素化를 비롯하여, 一般形式 區分과 總類 또는 主題와의 助記性, 歷史 地理區分과 地理 地方區分과의 助記性, 語學과 文學과의 助記性, 語學自體內的 國語共通 區分에 依한 助記性, 文學自體內的 文學形式 區分에 依한 助記性, 宗教自體內的 共通區分에 依한 助記性 및

其他 이와 같은 助記性이 豊富하여 理解와 記憶이 容易하기 때문에, 前者보다도 널리 世界的으로 使用되고 있다. 이것은 말하자면 理論的인 面보다도 實用的인 面을 重視한데서 歸因하는 現象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實用的인 面은 어디까지나 理論的인 面의 土臺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疎忽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以上の 叙述은 分類表 作成에 있어서 第一的인 基礎的인 方向 提示인 것이다. 換言하면 現代分類表는 그래도 十進法을 擇하는 것이 좋겠고, 또한 分類表 作成에 있어서는 理論的인 體系를 合理化시키면서도 實用面이 十分 反映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 2. 主類決定을 위한 研究

우리 分類分委는 前月號 圖協月報에 一部紹介한 바와같이, 本表 作成에 앞서 主類決定에 對한 專門家들의 意見を 參酌코자 機會 있을 때마다 非公式席上을 利用하여 諮問을 거듭한바 있었다. 이 諮問에서 나온 意見を 參考로 우리 分委는 그後 여러 차례에 걸쳐 國內外의 主要分類表의 主類를 比較檢討하면서 論議한 끝에 다음과 같이 決議하였다.

1) 諮問에 應해준 大部分의 專門家들이 希望하고 있듯이, 現在 우리나라의 큰 圖書館의 거의 大部分이 東洋部分을 展開한 D.D.C.를 使用하여 土臺를 잡았고 또 敎育과 講習도 그러한 方向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參酌하여 새로히 發足되는 圖書館에 推薦할 수 있는 分類表도 이러한 우리의 現實에서 너무 동떨어지지 않도록 D.D.C.의 主類에 準據한다.

2) 그러나 그 主類를 그대로 採擇할 것

이나 또는 語學과 文學 歷史와 社會科學과 같이 一部 不合理한 序列에 修正을 加할 것인가에 對하여는 다음과 같이 意見이 一致되었다.

主類를 全의으로 새로 設定하는 것이 아니고 D.D.C.의 主類를 準據하는 條件이라 多少의 矛盾이 있더라도 一次的으로 이에 依據하여 綱目表까지의 草案을 作成하고, 그 結果를 檢討한 後에 다시 諮問會를 열어 意見을 듣는다. 但, 應用科學은 技術科學으로 內容을 變更하여 보다 더 密接한 主題, 關聯이 깊은 主題로 圖書를 集中시켜 利用의 便宜를 圖謀한다.

D.D.C.主類序列에 손을 내지 않은 또 하나의 다른 理由는, 多少의 矛盾은 是認하나 그레도 傳統的인 理論 卽 逆 Bacon式인 悟性(Reason)(Science—方法 및 原理를 提供하는 科學], 想像(Imagination) Poesy, Arts—詩學, 藝術 등 意識의인 方法에 依하여 有機的인 調和를 主로하는 作品], 記憶(Memory)(History—歷史]을 根據로한 Harris의 分類法에 基礎를 둔 知識의 體系이므로 尙부로 變更하는 態度를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一部 專門家들의 強硬한 主張을 參酌한바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過程을 거쳐 主類를 定하고 綱目表를 展開하였다. 綱目表展開에 있어서는 D.D.C.의 東洋部分展開表, L.C., E.C., N.D.C., K.D.C. 修訂增補案, S.C., Lamont 分類表, 成大古書分類表草案, 裘開明氏分類表, 中國各種分類表等을 參考하여 D.D.C.의 歐美中心의 部分을 東洋中心으로 變更하고, 綱目的 非理論的인 體系와, 區分의 不均衡으로 말미암아 主要項目이 綱과 綱目과 目사이에 位置하여 利用에 不便한 것, 또 應用科學을 技術科學으로 變更

함에 따라 生긴 目的 移動等 大幅的인 修正을 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後 다시 이 草案을 事前에 配付하고 豫定대로 諮問會를 열어 忌憚없는 意見을 聽取했던 바, 1) 主類는 D.D.C.를 根據로 하고 綱目表도 可能한 限 D.D.C.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案과, 2) 草案의 綱以下가 大幅 變更되었으므로 主類만을 D.D.C.와 같이 한다는 것은 實際 아무런 意味가 없으니 語學과 文學, 歷史와 社會科學을 서로 接近시켜 주는 것이 좋다는 案이 나왔다. 이에 對하여 本分委로서는 現實에 너무 사로잡혀서 綱以下까지 D.D.C.대로 模倣한다면 分類表의 制定이 아니라 D.D.C.의 東洋部分展開에 不過하며, 또한 矛盾性을 認定하면서도 그대로 盲從하는 것은 決코 좋은 評價의 對象이 될 수 없으니, 2)案의 採擇을 原則으로 하되 또한 다른 方法도 아울러 研究해 보기로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2)案이란 結果의으로 E.C.나 L.C.의 主類와 거의 같게 되므로 우리 分委는 E.C.와 L.C.를 비롯하여 其他 主要分類表의 主類에 對한 得失을 慎重히 比較檢討하고 最終的으로 主類를 決定치 우기로 하였다.

#### a) E.C.와 L.C.의 主類

E.C.와 L.C.는 非十進法에 依한 主類排列이므로 이를 十進法으로 縮少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E.C.		L.C.	
000	總 類	總 類	
100	哲 學	哲 學	
200	宗 教	宗 教	
300	歷史科學	歷 史	
400	社會科學	社會科學(H-L)	
500	自然科學	藝 術(M-N)	

600	技術科學	語學
700	藝術	文學
800	語學	自然科學
900	文學	技術科學(R-T)
	圖書學(※2)	軍事學(※1)

書誌·圖書學(※2)

※1은 社會科學, ※2는 總類에 各各 編入시킨다.

위의 두 分類表의 主類는 自然科學 技術科學과 藝術 語學 文學의 序列位置가 서로 바뀌어 졌을 뿐 大體로 大同小異하다. 兩者가 다 歷史와 社會科學, 語學과 文學이 接近되어 D.D.C. 보다는 그 序列이 合理的인 것은 事實이다. D.D.C.의 矛盾으로 指摘되어 있는 語學을 文學의 上位에 接近시키고, 歷史를 社會科學의 上位에 接近시키면 E.C.의 主類가 되고, 語學의 上下位에 藝術과 文學을 옮기고, 歷史를 社會科學의 上位에 옮겨 接近시키면 L.C.가 되는 셈이 된다. 이 兩者를 現代의 科學의 一般的인 分類方法인 人文科學과 自然科學으로 大別하여 그 序列을 考察하면, E.C.는 人文科學(精神科學, 社會科學) 自然科學, 人文科學(文藝科學)의 順으로 되어 있고, L.C.는 人文科學(精神科學, 社會科學, 文藝科學) 自然科學의 順으로 되어 後者가 人文科學을 一括하여 接近시켜 주고 있어 特히 耳目을 끈다.

그런데 E.C.와 L.C.를 十進으로 고칠때 主類 300에 歷史를 配當한다면, 一般形式 區分과 總類 文學形式 및 言語共通區分과 의 助記性을 順理롭게 살리기 困難하다. 例를 들면

ㄱ) 主類 300이 歷史가됨에 따라, 一般形式 區分에 있어서 02를 辭典 百科事典으로 하고, 便覽 핸드북은 各主題 總記로 옮

기거나 02에 함께 配當한다. 總類에 있어서는 020을 一般百科事典으로 하고, 그 位置에 있는 圖書館學을 090으로 들리며, 030은 空欄으로 둔다. 語學에 있어서도 2를 辭典, 3을 語源으로 서로 바꾼다. 勿論 語源이 辭典 앞에 位置하는 것이 合理的이나 助記性을 살리기 위한 不得已한 措置이다. 또 各主題에 있어서 歷史關係에 該當되는 圖書가 많은 境遇, 一般形式 區分 03단으로는 複雜하고 分類記號가 길어서 이를 綱 또는 目으로 꼬집어 내릴 必要가 있는데, 이때 歷史가 그 主題體系의 사이에 끼어 매우 不合理하다. 다음의 境遇를 例로 들어보자.

- 610 建築術
- 611 宮殿 廟社
- 612 宗教建築 (←200 宗教)
- 613 建築史(다시 時代別 國別로 細區分한다)
- 614 研究所 試驗所 (←400 純粹科學)
- 615 工場建築 (←500 技術科學)
- 616 住宅
- 617 商業建築
- 618 其他建築
- 619 建築各部意匠 및 裝飾

위 表는, 建築의 歷史를 비롯한 時代別 國別 建築樣式과 그 研究評論 및 寫眞을 610.3에 分類하면 複雜해지고 記號가 길어지게 되어, 目인 613으로 꼬집어 내린 境遇의 例이다. 이때 613 建築史는 主題體系의 中間에 位置하게 되므로 不合理하다. 이를 解決하기 위하여 611 612를 空欄으로 두더라도 適當치 않고, 611이나 619를 建築史로 하더라도 助記性이 缺如된다. 이러한 例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十進法의 主類에 있어

서는 歷史가 200 보다 上位가 아니면 900에 配當되는 것이 助記性을 살리는 데는 가장 有利하다.

ㄴ) 一般形式區分에 있어서 04를 辭典 百科事典으로 하고 論文集 講演集은 없앤다. 總類에 있어서 030은 空欄으로 하고 040을 一般百科事典으로 하며, 一般講論集 一般雜隨筆은 090으로 옮긴다. 이것은 K. D.C.의 050一般講論集 090 隨筆雜書를 합해서 090에 配當한 셈이 되어 다시 090을 雜書로하는 方式이 復活된 感이 있으므로 그리 踏박한 편이 못된다. 또 文學의 4隨筆과 助記性이 맞지 않으며, 各主題에 있

→어서 歷史關係圖書가 많아 一般形式區分을 使用하지 않고 綱 또는 目으로 끄집어 내릴 境遇도 위의 ㄱ)과 같이 亦是 不合理하다.

ㄷ) 助記性을 無視하면 여러가지 方法이 案出되나 現代十進分類表로서의 價値는 없어진다.

E.C.와 L.C.를 N.D.C.와 같은 方法으로 高치한다면, 위에서 言及한 助記性問題와 各主題에 있어서 歷史關係에 該當되는 圖書가 많아 歷史를 綱目으로 끄집어 내릴때의 問題도 解決할 수 있다(仔細한 例는 N.D.C.를 參照할 것).

NDC	EC	LC
000 總 類	總 類	總 類
100 哲學·宗教	哲學·宗教	哲學·宗教
200 歷 史	歷史科學	歷 史
300 社會科學	社會科學	社會科學
400 自然科學	自然科學	藝 術
500 工 學	} 技術科學	語 學
600 產 業		文 學
700 藝 術	藝 術	自然科學
800 語 學	語 學	} 技術科學
900 文 學	文 學	
	圖 書 學(※2)	軍事學(※1)
		書誌·圖書館學(※2)

※1은 社會科學, ※2는 總類에 各各 編入시킨다.

그러나 이에 또 短點이 隨伴된다. N.D.C.는 E.C.의 主類를 그대로 採擇하고 다만 技術科學을 工業과 產業으로 二區分한데 不過하지만 이것의 矛盾은 매우 크다. 卽 產業과 經濟의 限界를 어떻게 劃定할 것인가가 問題의 焦點이 되는 것이다. 產業은 生産經濟로 바꾸어 말 할 수도 있으므로 經濟의 領域에 屬하여야 하며, 또 商

業 運輸 通信도 理論上으로 볼때 經濟의 領域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十進法에 있어서 100에 哲學 宗教를 統合하면 반드시 다른 肥大한 類를 二區分하여야 하는데, 前記한 바와 같이 技術科學에 있어서도 困難하고 社會科學에 있어서도 K.D.C.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不合理한 點이 있다. 이런 結果로서 E.C.와 L.C.도

主類의 理論의인 序列에 對해서는 그 優秀性을 認定할 수 있으나, 助記性을 一貫 시키려는 見地에서는 躊躇치 않을 수 없다.

b) L.C.主類의 修正案

000 總 類	500 文 學
100 哲 學	600 純粹科學
200 宗 教	700 技術科學
300 藝 術	800 社會科學
400 語 學	900 歷 史

이 案은 D.D.C.를 본따 單純히 歷史의 助記性을 살리기 위하여 L.C. 主類의 精神科學 다음에 位置했던 社會科學과 歷史를 800과 900으로 移動시킨 修正에 不過하다. 그러나 世稱 四大分類表(DDC, LC, EC, SC)를 비롯하여 其他 現代主要分類表를 一瞥하면 大體로 社會科學이 藝文學앞에 位置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序列은 學을 分類하는 理論의 根據如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勿論 絕對의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생각컨대 人間이란 必然의으로 社會生活을 營爲하여야 하고 그 社會生活 가운데서 對人關係를 通하여 思想을 交換하고 創造的 乃至 想像의인 活動을 展開한다는 觀點에 立脚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또 一方 Bliss의 學의 分類에 있어 論理的 順序와 知識의 發展의 順序를 보더라도 社會學이 語文學보다 앞에 있음도 參考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助記性에 있어서는 一般形式區分 01 哲學 및 理論과 主題와의 關係가 圓滿히 解決되지 않는다. 例를 들면 本分委分類表 草案의 一般形式區分 01 哲學 및 理論의 細區分에 있어서 016이 書目研究(←016 主題別書目)인데 이것이 科學의 研究 및

理論(←600 純粹科學)과 重複되며, 018 心理的研究(←180 心理學)가 社會科學의 研究 및 理論(←800 社會科學)과 또한 重複되어, 萬一 本主類를 採擇한다면 우리가 企圖하는 助記性은 不得已 缺如되고 만다.

c) S.C., Bliss分類表 主類의 折衷案

Wundt의 學의 分類에 主類序列의 根據를 둔 S.C.와, Wundt와 Rickert의 學의 分類에 準據한 Bliss分類表의 主類를 參考하고 折衷하면 다음과 같은 主類表를 만들 수 있다.

000 總 類	500 社會科學
100 自然科學	600 藝 術※
200 技術科學	700 語 學
300 哲 學	800 文 學
400 宗 教	900 歷 史

※(SC에는 人種學 및 醫學內에 있음)

위 主類表는 主로 S.C.에 準據한 것이다. 自然科學과 技術科學을 主類上位에 둔 것은 Bliss 分類表도 그 아이디어가 一致한다. 一般分類表의 主類가 精神科學에 優位性을 준데 對하여 本主類表는 自然科學에 優位性을 준것이 그 特徵이라 하겠다. 自然科學萬能時代인 오늘날에 있어서 意味 있는 知識의 展開이기는 하나 一方 精神이 根源的 實在이며 自然이나 物質도 實은 精神의 產物에 不過하다는 이른바 精神優位性을 肯定하는 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는 再考의 餘地가 있다고 본다.

d) D.D.C. 및 E.C. 主類의 修正案

000 總 類	500 技術科學
100 哲 學	600 藝 術
200 宗 教	700 語 學
300 社會科學	800 文 學
400 純粹科學	900 歷 史

이것은 D.D.C.의 一部 變更인 同時에

E.C.의 一部 變更이기도 하다. D.D.C.가 語學을 400에 配當하여 社會科學에 接近시킨 것은 言語가 社會的인 所産인 데서 말미암은 것으로 그 論據의 妥當性은 首肯되나,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密接한 關係에 있는 것은 文學일 것이다. 文學의 基礎學問은 語學이며 語學의 熟達 乃至 發達은 文學에 依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 兩者는 姉妹的인 關係에 놓여 있는 學問인 것이다. 또 實際問題로서 語文系統의 著述을 보면 語學과 文學을 같이 다룬 것이 적지 않다. 그런 까닭에 D.D.C. 以外的 分類表는 學皆가 語學과 文學의 主類를 接近시켜 주고 있으며, 分類表에 따라서는 한 類內에 並置하여 接近시켜 준 것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本修正案의 主類序列上 指摘을 免치 못할 것은 900 歷史가 300 社會科學에서 分離된 點이다. 歷史가 人間社會에서 일어난 過去의 諸般事實을 다룬 學問인 點에서 社會科學의 領域에 屬하는 것이 至當한 理致이나, 反面 그 解釋의 角度를 달리 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歷史 特히 文化史로서 다루어진 것의 內容을 보면 政治, 經濟, 社會, 文學, 藝術, 哲學, 宗教, 科學, 技術等 全分野에 걸친 過去事實을 記錄하고 있어 主類全般에 關聯된 學問으로서의 性格을 具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東洋의 史書를 보더라도 그와 같다. 正史即 紀傳體史書는 志가 文物制度全般을 總網羅 記錄하고 있고, 編年體史書는 年代順으로 모든 分野에서 일어난 史實을 다루고 있어 어느 學問을 莫論하고 史의 研究를 하려면 반드시 이 史書를 原典으로 利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보면 歷史科學은 社會科學의 領域에서 벗어나 主類全般에 關聯된 記錄類의 學問으로서 文學에 接近시켜 마지막 主類인 900에 配當해도 無妨할 것 같다.

四大分類表中 마지막으로 創案되어 發表된 바 있는 Brown의 S.C.에 있어서도 歷史를 文學과 함께 記錄에 關係가 있는 學問으로 取扱하고 社會科學에서 分離시켜 마지막 主類에 配當하고 있음은 亦是 參考가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體系의 主類序列을 窮理하고 案出할 수 있으나, 우리 自身들이 뚜렷한 學의 理論인 體系를 세울만한 哲學的인 知識이 없는 限 이 程度로 主類序列에 對한 討究을 끝맺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所期하는 바를 摸索하려 한다.

### 3. 結 言

以上에서 分類表草案의 主類 決定을 爲하여 既成主要分類表의 主類 및 그에 對한 可能한 修正案을 들어, 理論과 實用의 兩面에 걸쳐 檢討吟味하여 보았다. 그 中에서 比較的 主類序列이 理論的이라고 稱할 수 있는 것은 LC와 EC를 들 수 있으나 不幸히도 十進法으로 고침에 따라 歷史가 300에 配當되어, 實用面에 있어서는 助記性이 缺如되고 또한 各主題에 있어서는 綱 또는 目으로 歷史를 끄집어 내릴 必要가 있을 때 主題體系를 分割시키는 短點이 派生된다. 이 問題의 解決을 위해서는 N. D.C.와 같이 100에 哲學과 宗教를 統合하고 200에 歷史를 配當하면 圓滿히 處理할 수 있으나, 反面에 다른 分量이 많은 類(技術科學, 社會科學 따위)를 2分하여 空欄의 主類를 充當하여야 한다. 그러나 十進法에 있어서 2分하는 그 自體가 本論에

서도言及한 바와 같이 容易한 일이 아니므로 圓滿한 解決이 어렵다.

그 외에도 L.C. 主類의 修正案, S.C. Bliss 分類表 主類의 折衷案을 檢討하여 보았으나 亦是 滿足할 만한 解決을 못보았다.

D.C. 또는 E.C. 主類의 修正案은 現在 우리 나라에서 主用되고 있는 D.D.C.의 가장 큰 矛盾의 하나인 語文學의 分離를 相互接近시켜 준 것이 되고, 또한 E.C.의 立場으로서의 歷史의 內容이 諸科學과 密接한 關聯을 갖고 있는 點에서 諸科學의 共通된 過去의 記錄文獻으로 解釋하여 이

를 900으로 옮겨 준 것이 된다. 그리고 아울러 十進法에서 重要視하는 助記性問題도 圓滿히 解決한 셈이 된다.

本分委는 이와같은 檢討段階를 거쳐 理論上으로도 過히 遜色이 없고 또한 助記性도 最大限으로 살릴 수 있는 D.D.C. 또는 E.C. 主類의 修正案을 分類表草案의 主類로 採擇하기로 決定하였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現在 우리 나라에서 大部分의 圖書館이 主用하고 있는 D.D.C.의 主類體系와도 자못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  
끝 (筆者: 東國大學校 圖書館司書長 技術委員會分類分委員長)

## 圖協마-크 圖案募集

韓國圖書館協會의 마-크 圖案을 아래와 같이 募集합니다. 많은 作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作品內容: 本協會의 趣旨와 圖書館의 使命을 象徵하는 圖案으로써 圖協 印刷物 및 팻지에 應用할 수 있는 것.
2. 募集期間: 1963年 7月 10日까지 事務局에 到着할 것.  
(1人 數點도 可함)
3. 施 賞: 當選작에 對하여는 7月 中에 所定의 賞金을 施賞함.
4. 보내실곳: 서울特別市 中區 小公洞 6

韓國圖書館協會(Tel 2-4864)

參 考: 本協會의 英文名稱: KLA (Korean Library Association)

本協會의 略稱: 韓 圖 協